

이솝우화에 '농부와 여우'라는 얘기가 있다.

평생 공처가로 살아온 한 농부가 그동안 자기 집 닭장에 꿩일 새 없이 두고두고 피해를 입혀온 여우를 덫으로 잡았다. 농부가 쾌재를 부르며, "이, 교활한 녀석. 넌 빨리 죽이기도 아까운 놈이야. 그동안 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말이야." 하고 입맛을 다셨다. 그 농부는 이 녀석한테 어떤 벌을 주어야 속이 시원할까 한참 생각했다. 마침내 농부는 형콩에다 석유를 흠뻑 적셔서 여우의 꼬리에 단단히 잡아 맨 다음 불을 놓았다. 그리고 나서 농부는 여우의 절망적인 원맨쇼를 즐기기 위해 여우를 풀어 놓았다.

그런데 그 놈의 여우가 추수 직전의 잘 익은 자기 밀밭으로 허겁지겁 정신없이 뛰어드는 게 아닌가. 불은 삼시간에 번졌다. 농부는 여름 내내 비지땀 흘려 지은 농사가 바로 코앞에서 한줌의 재로 돌변하는 광경을 목격하지 않으면 안됐다. 농부는 냇이 나갈 정도로 상심했다. 이 가슴의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아물 줄 몰랐는데, 그건 특히 그 모든 일이 당신 탓이라고 잇을 만하면 잔소리를 해대는 마누라 때문이었다.

### 조작된 광기의 사회

남북한 관계는 이 농부와 여우 사이와 다를 바 없다. 남한과 북한 둘 다 서로에 대해 명정한 잔혹함을 재치문답처럼 즐겨왔다. 그러면서 또 흐리멍덩하게 강대국의 놀림감이 되거나, 또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차례로 빼앗기곤 한다.

특히 박정희 시대, 우리는 북한이 김일성의 환갑잔치를 서울 한복판에서 치르려 한다고 법석을 피우는 조작된 광기 속에서 살았다. 책을 읽건, 말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심지어는 머릿속에서 공상을 하건 간에, 조금이라도 정권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면 이내 빨갱이와 연계됐다. 우리는 불안에 떨었다.



## 거짓신화에 도전하는 이성의 논리

리영희 비평집 《반세기의 신화》를 읽고

박호성 | 서강대 정외과 교수

그러나 정권은 완강했다. 그들은 그런 일

상적 감시에 만족치 않고 그에 덧붙여 정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려댔다. 매달 15일 오후 2시가 되면 우리는 민방공훈련의 이름 아래 잘 길들여진 군용견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기를 피해 짹째 지하도로 몸을 숨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무슨 광대짓이었던가.

우리는 불신을 배웠다. 그런 불신은 권력을 향해서만 수준되지는 않았다.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믿지 않았고, 민간인은 군인을 믿지 않았으며, 노동자는 기업가를 믿지 않았고, 국민은 지배자와 그 주위를 배회하는 자들을 믿지 않았으며, 권력자들 역시 서로서도 믿지 않았다. 총체적 분열이었다. 불신은 단순히 '풍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생필품이 돼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리영희 교수는 이런 민족현실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고 글을 썼고 감옥에 갇혔다.

“교조는 지성의 무덤이다. 그러므로 좌파의 교조라 해서 우파의 그것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 이것은 우리 모두 귀기울여야 할 버트란트 러셀의 말이다. 리영희 교수는 이런 교조의 무덤을 파괴하고 있다. 알 지(知)는 화살 시(矢)와 입 구(口)의 조합이다. 한마디로 리 교수는 이 책에서 합리적인 ‘입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런 저자에게 한반도에 범람하는 ‘선악설’과 흑백논리 같은 것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그는 거짓과 신

화와 우상을 격렬히 거부하며, 우리 남북한 모두를 위해 ‘인식의 혁명’을 제창하고 있다.

### 계몽적 인간주의자의 신앙고백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좀더 많은 신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것. 말하자면 좀더 적은 메시아적 열정, 좀더 많은 계몽된 회의주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좀더 많은 관용이다. 특히 공산권이 역사적으로 증언을 고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하나의 신념체계에 대한 거대한 실험의 임종을 좀더 겸허하게 맞아들인다는 뜻에서, 그리고 후쿠야마 류의 자유민주주의적 독선을 좀더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유연한 성찰과 ‘계몽된 회의주의’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닐까.

어느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는 “무한히 멀리 떨어진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함정같은 것이다. 목표는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질타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빵이 필요한 인민 대중의 고난이라고 절규했다. 요컨대 추상적 관념과 환상적 목표가 아니라 무엇보다 그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려드는 이런 현실적 역사인식은 특히 오늘날 좀더 합리적인 호소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정신자세의 산물이다.

리영희 교수는 ‘한반도적’ 민족주의자며, 이상적 현실주의자고, 계몽적 인간주의자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겸허한 신앙고백이다. ●